

맞이하기

- *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가장 힘들었던 일 한 가지와 가장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나누어봅시다.
- * 지난 주 함께 기도한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나누어 봅시다.

말씀요약

- * 설교본문과 설교요약을 읽습니다. (bit.ly/31moim)

은혜 나누기

- * 말씀을 들으며 가장 와 닿았던 내용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 * 말씀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감사하게 된 것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 오늘 나눈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도전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교회가 세상의 일반 모임과 다른 점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왜 그래야 할까요?
 - 교회에서까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기

- * 이번 한 주 어떤 삶을 기대하십니까? 구체적인 기도제목 한 가지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 * 공동체를 위한 기도제목들을 공유하며 기도합시다.

들어가며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할레파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할레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 증명이 되는가의 문제는 초기 이방교회들에게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바울은 할레를 자격의 요건으로 삼는 것은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자랑삼는 삶으로부터 역행하는 것임을 지적합니다.

1. 바울의 자격 목록

바울은 진정한 할레파는 육체의 할레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육체의 할레나 다른 조건들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할레를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으로 내세우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만약 다른 조건들을 내세울 것 같으면 자기만큼 완벽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을 것이라 합니다. 그는 난지 팔일 만에 할레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자, 베냐민 지파요,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은 순혈 히브리인입니다. 당대 최고의 율법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매우 엄격한 교육을 받은 지성이었으며, 열심으로는 천지를 돌아다니며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충성스러웠던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기준들을 모두 모아서 '율법의 의'라고 표현합니다. 율법이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 그는 무흠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자격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만큼 열성을 다해 그 자격을 갖추고자 분투했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부활의 날을 사모하는 바리새인으로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넉넉히 의인으로 인정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 그리스도를 얻는 삶

다메섹 언덕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자격들을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배설물 같이 가장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진정 부활하셨음을 발견하였을 때, 율법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시도가 결코 유효하지 않음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율법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고군분투 했었습니다. 태생적으로 갖추었던 자격 위에, 율법에 대한 열심과 충성으로 그 자격을 더 쌓아 나아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길이 부활 때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길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아는 것만이 부활에 이르는 길이라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율법 안에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인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발견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는 전에 내세웠던 요건들이 제공하는 자격을 잃는 대신, 그리스도를 얻어 그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종 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에 종은 재산일 뿐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수치스런 신분일 뿐, 결코 자랑으로 내세울만한 타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요 일꾼으로 부름 받은 것을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이전의 자격들을 잃어버리고, 그분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육체의 자랑거리들이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교인의 숫자와, 예산의 규모와, 사회적 영향력을 헛되게 자랑하고 의지하려는 태도가 교회에서 뿌리 뽑혀 나가야 합니다. 교회가 자랑하고 의지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능력뿐입니다.